



코스피	코스닥
2262.64 (+12.07)	683.47 (-4.94)
금리 (미국 3년)	환율 (원/달러)
1.46 (+0.02)	1158.10 (-1.30) (20일)



[뉴스]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내달 공개
02

<전자투표 이용결과(최근 3개년 비교)>

/예탁결제원

	17년 정기주총	18년 정기주총	19년 정기주총
행사주주 수	11,795명	36,141명	106,259명
행사주식 수	4.79억주	8.86억주	13.56억주
행사율 (총 발행주식수 대비)	1.80%	3.90%	5.04%

의결권 확보 도움 안돼 주가↓에 '무조건 반대'

주총대란(大亂) 오나

<中> 갈길 먼 전자투표제

주가 떨어지면 분노한 주주들
모든 안전에 '반대'로 회사 골탕
억대 비용내며 위임장 대행까지

전자투표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새도보팅' 폐지 후 주주총회 정상화의 대안으로 꼽혀왔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된 전자투표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자투표의 부작용도 곳곳에서 들린다. 여전히 특별한 안전 통과를 위한 의결권 확보는 힘든 상황이다.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관련 업계와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악용'의 악몽

전자투표는 주총일 열흘 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주주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에 분노한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모든 안전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다.

한 코스닥기업 IR 담당자는 "지난해 전자투표 이용률이 48%에 달한 회사가 있다. 그리고 반대 비중이 96%에 달했다. 사실과악을 해보니 주가 하락에 분노한 주주들이 회사를 골탕먹이기 위해 전자투표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운영방식에 대한 혼란도 나온다. 현재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3곳이다.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대형증권사도 전자투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자투표 서비스 기업이 늘어나면서 주주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탁결제원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런 혼란이 없었지만 이제 주주들은 주총소집통지서에 명시된 기관을 통해서만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기관간 시스템 통합도 이뤄지지 않았다.

◆ "전자투표와 병행할 대안 필요"

예탁결제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전자투표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3월 기준 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서비스(K-eVote)를 이용한 12월 결산법인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564개사로 집계됐다. 전자투표 행사율(전체 행사주식 수 중 전자투표로 행사한 비율)은 5.04%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5%라는 수준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초창기 도입 사례를 보면 결코 낮은 성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전자투표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으면 이용률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자투표가 의결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상장사 주총 담당자들은 여전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상법 제352조 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있다. 주주의 전화번호도 알 수 없어서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무작정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결권 위임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찾는 상장사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주주명부를 주면 대행업체가 대신 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오는 식이다. 대행비용은 주주구성,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억'단위는 예사로 넘어가기도 한다. 상장사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한계기업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억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IR 담당자는 "전자투표가 자리잡기도 전에 의결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면서 주총 환경은 더 힘들어졌다"면서 "최소한 주주 전화번호 공개로 의결권 확보를 쉽게 만들어주거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폐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삼성, 폰 수장에 '갤럭시신화' 노태문 사장

삼성전자 정기 사장단 인사

김기남-김현석-고동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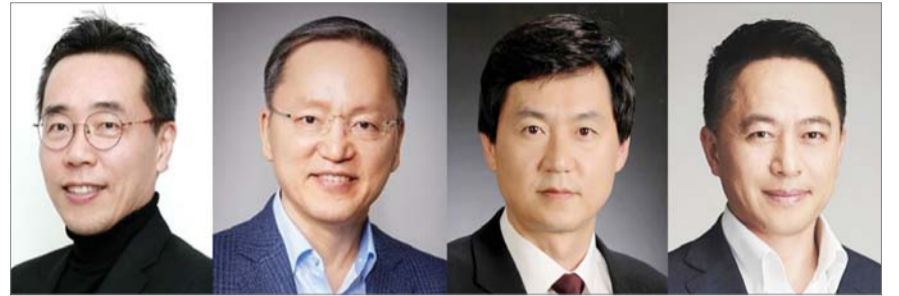
3인 대표체제 그대로 유지

삼성전자가 사장단 개편으로 안정 속 혁신을 이룰 기틀을 마련했다. 준법감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인용 고문도 다시 현업으로 복귀시켰다.

삼성전자는 20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성과주의를 기조로 신성장 사업과 핵심기술 개발을 맡은 젊은 사장을 기용하는 등 세대교체도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3면>

3인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은 각각 담당 분야인 DS부문장과 CE부문장, IM부문장을 계속 맡기로 했다.

단, 종합기술원장은 황성우 신임 사



황성우 사장

박학규 사장

전경훈 사장

최윤호 사장

장이,무선사업부장은 노태문 사장이 새로 맡게 됐다. 네트워크사업사업부장이었던 전경훈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하며 더 큰 책임감을 부여받게 됐다. 이인용 고문도 현직으로 복귀했다. CR(Corporation Relations)담당 사장으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사업지원 T/F에 있던 최윤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시킴과 동시에 경영지원실장으로, 삼

성SDS 사업운영총괄을 맡고 있던 박학규 부사장 역시 사장으로 승진 인사와 함께 DS부문 경영지원실장으로 새로 보임했다.

삼성전기도 이날 새로운 지휘자를 맞이했다. 삼성전자에서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설계 팀장과 솔루션 개발 실장 등을 역임한 경계현 사장이. 부사장에서 승진 임명됐다.

/김재용 기자 juk@



20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박용만 등 애도... 후형제 화해 모양새

<신동주·신동빈>

신격호 롯데 창업주 조문행렬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에는 20일 오전 정·계계 인사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전 7시50분부터 빈소를 지켰고,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호텔스 부회장은 25분 뒤 신 회장과 함께 자리했다. <관련기사 L3면>

경영권 분쟁 등으로 사이가 소원했던 두 형제는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에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조문객을 맞았다.

재계에서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37분에 와 10분 가량 머물며 유족을 위로했다. 이 부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빈소를 빠져나갔다. 오전 10시부터 손경식 CJ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몽준 아산

재단 이사장 등이 차례로 다녀갔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고인(故人)의 기업가 정신을 추어올렸다. 손 회장은 "존경하던 분이였다. 전설적인 대기업을 일군 분"이라며 "명복을 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롯데를 이루셨을까를 생각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후배 경영인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였다. 많은 연세에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거인을 잃게 돼 안타깝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회장은 약 8분간 빈소에 머물다 함께 온 CJ그룹 경영진들과 돌아갔다.

정계 조문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오전 10시20분께 빈소를 찾아 두 시간 가량 머물며 신 명예회장 가족을 위로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오후 1시52분 빈소에 10분 가량 머물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총리와 신 명예회장과는 생전에 인연이 없었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난 사이다.

빈소에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을 대신해 조문했다.

장례는 롯데 그룹장으로 치러지고,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장례위원장을, 롯데지주 황기규·송용덕 대표이사가 장례위원장 맡는다. 발인은 22일, 장지는 신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선영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